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공부

제38과 신천신지

[계21: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죄로 남아지고 더럽혀져서 변질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재창조이다. 그때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지구 환경만이 아니라 그 지구에 살 사람들도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같이 순결하고 의롭게 된다. 아담보다 더욱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곳이 신천신지이다.

1. 세상이 새롭게 된다.

[계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에 새롭게 한다는 말쑤는 “카이노스(καινός)”로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뜻하는 말이다.

마태복음에 새롭게 되어는 “팔링게네시아(παλιγγενεσία)”로 거듭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거듭나서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쑤이다. 새 하늘 새 땅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된다.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65:17,18]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그것을 볼 것이다. “있으라”하시

때 있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을 다 보았다.

[욥38:4-7]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6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우주의 장자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그러나 이 지구가 마지막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구의 거민들은 창조하시는 것을 못 보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기쁘게 소리 할 것이다. 참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2.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신다.

[단2:34,35]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35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계시에서 뜨인 돌은 우상을 다 부수고 바로 그 자리에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지구에 건설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계시이다.

[단2:44,45]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도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계20:7-9]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망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곡과 마곡이다. 그들이 땅 사망의 백성이며, 이들은 지면에 널리 퍼져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이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성이 지상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이 성을 포위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인류가 살 영원한 천국이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어느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

3. 신천지의 환경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의 질서와 환경이 변질되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이다.

[사35:1-10]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4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말씀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 천연계의 회복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는가.

[사11:6-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55:13]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 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3:18 내용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시와 영경귀를 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잣나무와 화석류로 대체될 것을 나타낸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4. 신천지의 생활

[계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신천지에서 왜 눈물을 흘릴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일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것은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도 있다. 주께서 그렇게 큰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그들의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 불 못 속에서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계22:3,4]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신천지에서의 생활의 실상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에 빗대어서 짐

작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성경의 묘사도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용하여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사65:21-25]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여기의 묘사도 세상에서 사는 삶을 빌어서 묘사한 것이다. 이 말씀이 핵심 사상은 그곳에는 아무에게도 결핍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60:17-22]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5. 신천지의 사회구조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하늘 왕국이다. 천국에 대하여 공부할 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렘10:10] 오직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계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52: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계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

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왕이다. 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드나든다. 그들은 왕이면서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동시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다.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구조는 세상의 사회구조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면서 나라요, 나라이면서 교회이다. 이런 모든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마23:9] 땅에 있는 자를 아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롬8:14-18]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60:17]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6. 신천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천년기가 지나면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 성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식되었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묘사하였다.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는 비교의 상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천연계의 사물을 빌려 표현한다. 꽃같이 고운 아가씨 또는 달덩이 같은 소년 등. 이런 비교는 사실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녔을 것이다.

[사35:1,2]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회복되는 세계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비교했다.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비교했다. 새 예루살렘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신부의 아름다움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계21:10-21]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

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4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꾸밈과 규모를 적어놓았다. 이 기록은 상징적인 사실이 많이 포함되었다. 아마도 실제로도 이렇게 건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2000 스타디온과 12 성문의 이름과 12 기초석에 이름 등은 다 상징하는 것이 있다. 이 숫자들은 다 144의 수의 형식을 이룬다.

새 예루살렘의 면적은 $12000 \times 12000 = 144000000$ 평방 스타디온이다.

12000스타디온은 2400km라고 한다. 그러니까 $2400 \times 2400 = 5760,000\text{km}^2$ 이다. 엄청 큰 도성이다. 한 반도가 22만 평방 km.이니까 생각해 보라. 26배가 크다.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성벽의 두께는 144규빗이다. 모두 144라는 수형이다.

12 성문과 12 기초석도 144의 수형을 이룬다.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12 성문에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것은 사도들이 기초 놓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의 성이라는 뜻이다. 즉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계22:1,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동산에 있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금지된 그 생명나무이다. 이 말씀에는 정관사가 없으나 계시록 2:7에는 생명나무 앞에 정관사가 있다.

[계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말 앞에 “그”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에덴동산의 그 생명나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Τῷτὸ 그에게는 νικῶντι니콘티 이기는 δώσωδο소 내가 주어 αὐτῷ아우토 그에게 φαγεῖν파게인 먹게하리라 ἐκἐκ 나오노

것을 τοῦτὸ 그 ξύλου크실루 나무의 τῆς테스 그 ζωῆς조에스 생명의 ὅς호 그 ἐστίν에스틴 있는 ἐν엔 안에

μέσω^{메소} 가운데 τοῦ^투 그 παραδείσου^{파라데이수} 낙원의 τοῦ^투 그 θεοῦ.^{데우} 하나님의

그러므로 계22:2의 생명나무는 역시 같은 생명나무일 수밖에 없다.

이 나무는 12 달마다 12 가지 실과가 맺힌다. 역시 144의 수형을 이룬다. 이 수형은 완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를 상징하는 수형이라고 생각된다.

7. 완전한 회복

[계22:3-5]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된 신천지에서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화와 행복으로 살 것이다.

[빌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일3:2,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계시한다. 처음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이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보증 속에 영원히 산다.

[나1:9]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우주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11: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모두 여기서 만나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가 수고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사53:11]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요14:1-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다 함께 만나도록 날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아멘.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의 사후 20여년간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던 그의 분열된 제국의 후예들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기까지를 헬레네스시대(Hellenistic Age, 323-146 BC)라고 한다. 기원전 301년에 입수스(Ipsus) 전쟁의 결과로 넷으로 나뉘었던 알렉산더의 제국은, 기원전 297년에 카산더가 죽고, 281년에 리시마쿠스가 살해당함으로써, 그들의 왕국도 함께 무너져 버렸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에는 시리아와 소아시아 동부를 다스리게 된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의 이름으로 들어섰고, 남쪽은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 팔레스틴이 로마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들 북방 왕국 시리아와 남방 왕국 이집트의 두 세력이 마주치는 각축장(角逐場)이 되어 거룩한 땅, 영화로운 땅은 저주받은 격전지가 되었다

젊은 나이로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뒤, 대제국은 힘센 자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12년 간이나 계속된 내란 후에 알렉산더를 계승하여 통일된 대제국을 주장하며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 안티고누스(Antigonos)와, 이에 반대하는 네 장수들, 즉 카산더(Cassander), 리시마쿠스(Lysimachus), 셀루쿠스(Seleucus)와 프톨레미(Ptolemy)의 연합 세력은 마침내 기원전 301년 입수스(Ipsus)에서 대제국, 나아가서는 세계 역사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회전(大會戰)을 치뤘다. 싸움은 네 장수들의 연합 세력의 승리로 끝났고, 안티고누스는 살해되었으며, 땅들은 이미 왕들로 모습을 바꾼 네 장수들에 의해 분할되었다.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은, (알렉산더의)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셀루쿠스는 브리기아에서 인도까지의 아시아

를, 리시마쿠스는 서부 소아시아와 트래이스(Thrace)를 받았다. 알렉산더의 사후 이집트의 총독으로 있던 프톨레미는 그곳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았으며, 칸타는 이미 마케도니아의 통치자였었지만, 이제는 왕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알렉산더의 제국은 네 개의 왕국으로 분할된 것이다] G. W. Botsford, A History of Greece, 318, 319, cited by Thiele, 62.

젊은 나이에 죽어 유복자(有腹子) 외에는 후사를 남기지 못한 알렉산더의 후계(後繼) 다툼은, 그후 장장 20년에 걸쳐 회오리 바람처럼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를 방불케 했으나, 301년 입수스(Ipsus) 전쟁을 계기로, 그의 영토는 다음과 같이 그의 네 장수에 의해 "하늘 사방"으로 나뉘었다.

참으로 문자 그대로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 또한 천사의 설명대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을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8:22)는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분할된 과정과 내용에 관하여는 7장의 네 머리 가지 표범의 설명을 참고할 것).